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0% ‘일손 보탬’

베트남 풍합현 MOU 인력 고용
농번기 인력 문제 완화 경영 안정
입·출국 교통비 등 국내 안착 지원
재입국 추천제 성실 근로자 혜택

강진군이 베트남 풍합현과 10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협약을 맺고 근로자들의 주거 공간 조성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한 결과 이탈률이 0%인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한 공공형 베트남 공공형 계절근로자 20명, 농가형 결혼이민자 가족 70명의 이탈률이 전무한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는 강진군과 국제 우호도시인 베트남 풍합현과의 지난 10년간에 걸친 오랜 기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이 가장 큰 바탕이 됐다.

지난 2023년부터 체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번기 동안 일손이 부족한 강진군의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강진군은 지난해 3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는 베트남 풍합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4월 20명의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안착을 위해 입·출국 교통비와 통역비를 지원하고 2동의 주거 공간을 제공했다. 이들은 5개월간의 정식 인력계약을 맺었고 대다수는 3개월의 추가 작업을 확정 짓고 오는 11월 22일까지 농작업에 임한다.

군은 지난 베트남 풍합현 MOU 체결과 재입국 추천 제도, 성실 근로자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내년도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는 더욱 증가할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수요조사를 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며 배정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영농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베트남 풍합현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안정적으로 외국인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작업시 주의사항을 안내 받고 있다.

강진군 제공

근로자 인력을 공급받아 농번기의 극심한 인력 문제를 완화하고, 농촌 인건비 상승을 방지하는 등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풍합현과 계절근로제 등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강

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주인 도암농협 윤재선 조합장은 “전담 직원을 배치해 숙식 편의 제공과 반일 근무,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외국인의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근로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베트남 현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고품질 단감 생산단지 조성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영암군농업기술센터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가 지난 14일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 단감 품종 ‘감풍’ 생산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감풍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전남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던 만생종 ‘부유’는 조기 수확으로 품질이 저하돼 시장에서 외면받는 등 농가의 걱정거리였다.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으로 감풍을 영암 특화 작목으로 육성해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의 생산·유통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배연구센터는 영암군 농가에 신품종 재배기술 자문, 감풍 전용 포장 박스 기술 제공 등에 나선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감풍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가 재배 역량 제고에 나선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배연구센터와 협력해 지역 농가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하겠다. 감풍 품종을 영암 단감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부모 교육 ‘책으로 크는 아이’ 운영 강진군도서관, 30명 선착순 접수

강진군도서관이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독서교육 방법을 소개, 가정에서도 책 읽기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모 독서교육 프로그램 ‘책으로 크는 아이’를 운영한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총 3회 진행된다.

취학 전 어린이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 30명, 3회 전 회차 참여가 가능한 분들에 한해 16일부터 선착순 신청받는다. 신청 방법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책으로 크는 아이’ 프로그램은 차선령 교사(목포 서현초), 김형에 독립서점 오늘의 페이지 대표, 임정자 동화작가(2024년 강진군도서관 상주작가) 등 독서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강사들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독서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도서관(061-430-3832)으로 문의하거나 강진군도서관 누리집(<https://www.gjlib.go.kr/>)을 참고하면 된다.

김신석 강진군도서관장은 “독서교육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도서관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배움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군, 섬 함초축제 연다 28일부터 증도면서

신안군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증도 태평염 전원에서 ‘섬 함초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11ha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 태평염전에서 열리며 갯벌과 염생식물이 어우러 자생하는 자연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다양한 염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주요 생물로는 함초, 칠면초, 철계, 방게, 고동 등이 있다.

행사 내용으로는 함초 자생지 관람, 지역 전통 공연, 소금밭 낙조 전망대에서의 일몰 감상, 먹거리 코너, 농특산물 판매, 체험 프로그램(소금밭체험, 소금불만들기, 소금동굴체험) 등이 포함된다.

한상표 사진작가의 ‘증도의 태양’ 사진전도 함께 열려 드론 사진을 통해 증도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야(夜)금야금 주말 야시장’ 연다 19일 완도전통시장서

완도전통시장에서 오는 19일부터 ‘야(夜)금야금 한상’ 주말 야시장이 열린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야시장은 전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으며 오는 19~20일, 11월 1~2일 총 4회에 걸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야시장에서는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 이외에 상인들이 자체 개발한 메뉴를 직접 선보일 계획이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과 즉석 노래자랑, 댄스 대회,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과 상인,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진행했던 ‘가을밤 행복 충전 야시장(총 4회)’에는 총 1500여명이 찾아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먹거리, 볼거리 등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무안군 관계자들이 낙지자원 증대를 위해 탄도만 해역에 어린 낙지 1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탄도만 해역 어린 낙지 1만마리 방류

무안군이 지난 15일 낙지자원 증대를 위해 탄도만 해역에 어린 낙지 1만 마리를 방류했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방류한 낙지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에서 지난 4월부터 성숙한 어미 낙지를 확보해 먹이 공급, 수온 조절 등 안정적 관리를 통해 부화시켰으며 방류를 위해

무안군에 무상으로 지원했다.

군은 낙지자원 조성을 위해 낙지금어기(6~7월)에 맞춰 약 2만6000마의 어미 낙지와 교접낙지를 방류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1만2000마의 낙지를 방류할 예정이다. 무안=김행연 기자

강진군, 병영 ‘불금불파’ 행사 지속 운영

로컬브랜딩 사업 연계 추진

강진군은 지난달 내린 폭우 피해로 3주간의 복구 기간을 갖고 지난 11일 불금불파행사를 재개장해 병영시장의 활기를 되찾았다고 16일 밝혔다.

폭우로 취소된 각종 프로그램 취소로 하멜촌 텐트 이용자, 시티투어 예약자들의 불편에 조금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보온보냉백, 쌀, 에코백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불금불파 주민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농부장터와 플리마켓 운영자들 또한 팝콘 무료 나눔과 버섯 10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해 불금불파 대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자들 또한 3주간 미뤄졌던 기발산에 행사장은 후끈 달아올랐고 DEM 공연 때는 관광객들은 DJ와 함께 신나는 댄스타임을 가졌다.

행사장에서 사용한 3만원 이상 영수증 지참 시 경품추첨권을 금액대별로 1장~3장 받아 추첨함에 넣은 행사도 가졌다. 추첨 행사는 매주 금·토요일 진행하며 오는 25일 오후 5시50분에 마감하고 오후 6시에 경품 추첨을 해 당첨자 10명에게는 강진사랑상품권 2만원의 행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 불금불파 행사는 지난 6월 특교세 3억원을 확보한 ‘2024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연계 사업으로 추진해 그동안 100% 군비로 운영돼왔던 불금불파 사업비 중 주민프로그램 사업비와 일부 주민친화 환경조성 사업비를 로컬브랜딩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1차년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내년 6월까지 불금불파 주민프로그램, 병영시장 장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진행하고 내년 2차년도 공모사업에도 응모

해 ‘한골목~하멜기념관~병영성 일대’ 환경 개선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투입해 불금불파는 물론 다양한 행사를 펼쳐 병영 불금불파를 강진의 대표 로컬 축제로 발전시키고 일대는 새로운 강진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개발해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병영면 지역은 총사업비 495억원 규모의 ‘병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병영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대규모 사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일본 3대 온천 관광지인 유후인과 서울 도심에 힐링 공간을 제공한 청계천에 버금가는 힐링 관광 명소로 만들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병영면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흙골제 댐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탐진강 수계의 상류인 금강천과 병영천의 수질개선 및 홍수 조절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말라가는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군민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생활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김윤복 기자